

I776 INSTITUTE

Newsletter

1776연구소 정기소식지 |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1103호 홈페이지 www.1776.or.kr 이메일 1776institute@gmail.com

지난달 연구소 동정

<국부론> 250주년 기념 청년 세미나

지난 3월 9일(월), 『국부론』 초판 출간 250주년을 맞아 애덤 스미스의 도덕철학과 경제철학을 함께 조명하는 청년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본 세미나는 애덤 스미스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인간 이해를 중심으로, 그의 도덕철학이 자유시장경제 사상으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세미나는 1부 도덕철학과 2부 경제철학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조평세 대표가 『도덕감정론』을 중심으로 발제하였으며, 2부에서는 민동환 연구원이 『국부론』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발제하였다. 이번 행사는 1776연구소 현장에서 진행되었고, 온라인(ZOOM)으로도 동시 송출되었다. 당일 온라인 40여 명이 접속하고 오프라인 현장에도 많은 참여자가 함께하며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



우남생파 및 서울역사투어

지난 21일(토), 우남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1주년을 기념하여 「우남생파 및 서울역사투어」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우남의 삶과 사상,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된 자리로, 하루에 걸쳐 추모·탐방·기념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행사는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는 일정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기념관, 광혜원 돌 등을 방문하는 근현대사 현장 탐방이 진행되었다. 저녁에는 '우남생파' 본행사가 이어졌다. 행사 1부에서는 황성준 1776연구소 자문위원이 「이승만과 1776정신」을 주제로 강의하였고, 2부에서는 이승만의 생애 전반을 다루는 「우남 퀴즈」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이어 3부 「WWRD (What Would Rhee Do)」 순서에서는 참석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이승만의 선택을 가정해보며 각자의 포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776연구소가 특별 제작한 우남 기념품을 나누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대표 인사말

유독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웬지 T.S.엘리엇의 '황무지'에서처럼 조만간 '그 겨울이 차라리 따뜻했다'라고 되뇌이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올 고환율, 고유가 후폭풍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포퓰리즘과 악법 폭주, 망가지는 한미동맹과 국방외교, 그럼에도 더 찢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 애국진영이 참 걱정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업에 집중해야겠지요. 결과는 오직 섭리에 맡기고 우직하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일상을 건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방문했던 양화진에서 보았던 로제타 홀 선교사의 기도가 계속 마음에 올립니다. "오 기도하오니, 저로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충성되게 하소서."

지난 3월에는 미국에서 랍 맥코이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도 함께 통역으로 동행했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아주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뜻 깊은 일은 랍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기독교 입국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랍 목사님을 통해 미국 보수 진영에 우리 '쌍만리'와 한미가 맺은 '신앙동맹'이 더 널리 알려질 기대합니다.

1776연구소의 4월 오프라인 모임으로는 여의도 벚꽃 피크닉(6일)과, 독립신문 창간 130주년을 기념하는 독립문 나들이(7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써서 서로 얼굴 보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부활절 4월 5일은 특별히 141년 전 처음 미국의 선교사들이 도착했던 부활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날 아펜젤러가 드렸던 기도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부활의 달 보내세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얹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조평세 올림

April, in the History of Liberty

- 4월 3일 (1948)**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마셜 플랜'에 서명하여, 4년간 서유럽 국가들에 총 120억 달러가 지원됨.
- 4월 3일 (1948)** 제주도에서 남조선로동당이 5·10 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내 24개 경찰지서 중 12개 지서를 무장 습격하면서 제주 4·3 사건이 시작됨.
- 4월 4일 (1968)**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저격범의 총에 맞아 사망함.
- 4월 7일 (1896)** 서재필이 한국 최초의 민간 신문이자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함. 독립신문은 그해 7월 설립된 독립협회(독립문 건립추진위원회)의 기관지로서 자주독립, 국민 계몽, 개화 사상을 고취했으며, 순 한글판 3면과 영문판 1면으로 구성됨. 현재 '신문의 날'로 기념
- 4월 8일 (1913)** 미국 수정 헌법 제17조가 비준되어, 주 의회에서 선거인단이 선출하던 연방 상원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됨.
- 4월 9일 (1865)** 로버트 E. 리 장군이 애포매투스 코트하우스에서 윌리엄 S.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하며 만 4년 동안 무려 62만 명이 죽은 미국 남북전쟁이 사실상 종결됨.
- 4월 12일 (1961)**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 "우주에 가보니 신은 없더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소련의 프로파간다였음이 밝혀짐.
- 4월 14일 (1865)** 성 금요일이었던 이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포드 극장에서 총격을 당해 이튿날 아침 사망함. 링컨은 1년 전 백악관에 방문한 어느 목사에게 자신의 암살을 예고했음.
- 4월 15일 (1912)**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하여 침몰. 이 사고로 1,500명 이상이 사망함. 북한은 이 날이 김일성 출생일(태양절)이라는 점을 활용해 "서양에선 태양이 질 때 동양(북한)에선 태양이 떴다"라는 프로파간다로 김일성 신격화함.
- 4월 17일 (1961)**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바 망명자들이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려다 실패한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발생함.
- 4월 19일 (1775)** 렉싱턴-콩코드에서 "세계에 울려 퍼진 총성(shot heard 'round the world)"과 함께 미국 독립 전쟁이 본격 시작됨.
- 4월 19일 (1960)**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일어남. 뒤늦게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부상당한 학생들을 위문, "부정을 보고도 일어서지 않는 국민은 죽은 백성이다. 젊은 학생들이 참 장하다"라고 말함. 이후 4월 26일 하야.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자 "불의를 보고 방관하지 않는 100만 학도가 있고 국민들이 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위로 편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답함.
- 4월 24일 (1800)** 미국 연방 정부의 가장 오래된 문화 기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의회 도서관이 설립됨.
- 4월 30일 (1789)** 조지 워싱턴이 뉴욕 페더럴홀에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취임식에서 "우리 미국인들만큼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인정하고 감사할 사람들은 없다."고 말한 후, 발코니에 올라가 창세기 50장이 펼쳐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

주목할만한 뉴스 / 칼럼

역사의 옳은 편에 서야 - 조평세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오랫동안 자국민을 사리아 철권통치로 억압했고, 자유문명을 상대로 온갖 테러와 대리전을 지원해 온 '악의 축'이 이렇게 제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마서 13:4)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비시(Vichy)식 부역'... 1940년 프랑스 패망의 데자뷔 - 로렌스 펙



"사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과도한 의존은 뼈아픈 진실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한국 정치의 실질적인 변화, 특히 좌파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노력은 미국이 개입해 주길 바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한국인 스스로의 힘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미국의 지지 선언이 한국 보수주의자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오직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활동과 무엇보다 중요한 투표만이 좌파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4월 연구소 동정

1776연구소 봄맞이 벚꽃 나들이

4월 6일(월), 여의도에 위치한 연구소의 특성을 살려 봄맞이 벚꽃 피크닉을 진행한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을 함께 산책한 뒤, 1776라운지로 이동해 '보수주의자의 연애 결혼'을 주제로 한 대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776연구소 펠로우들간의 뜻깊은 네트워킹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독립신문 창간 130주년 기념 역사탐방

4월 7일(화), 독립신문 창간 13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의 민간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문명개화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역사탐방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자유역사포럼과 1776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며, 독립문과 서재필 동상, 딜쿠샤 전시관을 차례로 견학하며 근대사의 현장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점심 식사와 함께 참가자 간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대통령의 탄생 - 조지 워싱턴」 특강

4월 30일(목),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의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여 특별 강연이 마련된다. 미국 독립전쟁 시기 존경받는 장교로서 활약한 후, 8년의 대통령 재임 동안 분열된 신생 공화국을 하나로 통합해 낸 조지 워싱턴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또한 관련 짧은 영상도 함께 시청하며 이해를 돕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헌정질서의 형성 과정과 그 원리를 살펴본다. 1776연구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동시 송출된다. 자세한 시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3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O은
견OO화O팅
견OO후O
권O리
권O빈
권O운
권O현
김O경
김O복
김O식
김O실

김O애
김O애
김O연
김O연
김O원
김O은
김O은
김O은
김O중
김O준
김O준

김O진
김O현
김O혜
김O희
나O원
남O호삼
노O스터
노O아
노O현

류O현
만O국제학교
명O인
문O아
민O홍
민O환
박O규
박O기
박O린
박O민

박O석
박O성
박O주
박O현
박O형
배O호
베드O센터
변O연
변O원
서O경
서O민

서O현
손O광
손O은
손O철
송O하
신O섭
신O준
신O을
양O선
양O진
원O슬

윤O민
윤O옥
이O라
이O락
이O민
이O민
이O빈
이O숙
이O연
이O영
이O운

이O은
이O은
이O진
이O창
이O한
이O현
이O혜
이O혜
이O희
이O란
임O민

장O
장O재
전O영
정O교
정O슬
정O아
정O용
정O원
정O한
정O호
조O영

조O윤
조O하
조O호
조O희
조O희
주O은
주O한
차O욱
최O석
추O령
하O랑

허O은
홍O성
황O아

후원 안내

3만원 이상 정기 후원 시
1776연구소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781904
(1776연구소)